

■ 개원 앞둔 18대 국회 미리 살펴보니

한·미 FTA, 쇠고기 협상 등 현안 산적

◇언제 시작하나=18대 국회의원의 공식 입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지만 첫 회의는 6월5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된다. 이날 오전 1차 임시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을 구성한 뒤, 오후 2시 2차 임시 본회의에서 18대 국회 개원식을 하게 된다. 18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245명, 비례대표 54명 등 모두 299명으로 오는 30일부터 2012년 5월29일까지만 4년간 활동한다.

◇초대 의장은 누구=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당내 최다선인 6선이지만 이 의원은 직책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정 의원은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5선의 김형오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근 4선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이 치러질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탈당, 무소속으로

18대 국회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대야소 구도로 시작하는 이번 국회는 개원과 함께 곧바로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비준 문제를 다뤄야 하는 등 지난 17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국내·외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며 국정을 꾸려나갈 18대 국회를 살펴본다.

국회의장 김형오 유력...안상수 도전장 3개 교섭단체 출발...상임위 통폐합 '이견'

남는다.

◇상임위는 어떻게 바뀌나=17대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18대 국회는 정부부처의 통폐합에 따라 상임위를 재조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개수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폐지만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17개 상임위 중 16개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최대

한 상임위 숫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상임위원장은 국회 의정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꽃'으로 불리며 주로 3~4선급 중진의원들이 차지한다.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의석비례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교섭단체 3개가 되면 무엇이 바뀌나=지난 23일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발표를 해서 18대 국회는 3개의 원내교섭단체로 출발하게 됐다. 국회 운영은 3당의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배분,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등이 협의 대상이다. 선진당과 한국당은 이번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쟁점과 현안=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고 있어 어떻게든 비준안 처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역시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산층·서민 권익 대변 '창조적 제3의 길' 천명

민주 26일 당선자 워크숍

통합민주당은 26일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낡은 진보와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새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창조적 제3의 길"을 18대 국회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

당의 대선 및 총선 패배 원인과 이명박 정부의 활동을 평가한 뒤 민주당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차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고통만 주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18대 국회를 맞아 (민주당이) 수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되지만 전부터서 이번

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당장 눈앞의 전투보다 멀리 있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끼리만 속닥거리고 다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당선자들은 그동안 쇠고기 정국에서 당의 역할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자성할 뒤 경찰의 촛불집회 탄압 중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면서 쇠고기 정부의 고시 강행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 화합 통해 5년뒤 정권 되찾겠다”

■ 민주 당대표 경선 출마 정세균 의원

“중산층 육성·서민 보호 정책 펼 것”

“통합민주당의 내부 화합을 통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5년 뒤 정권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7월6일 전당대회에서의 대표직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 의원은 26일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은 지붕만 있고 기둥과 주춧돌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민주당을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조기 비준과 관련, 정 의원은 “협정이라는 것은 상대 측과 함께



체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 등 미국에서 한미 FTA 체결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유가 상승 대책

으로 “탄력세율을 적용, 실질적인 감세를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만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인세율만 낮추지 않는다면 탄력세율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서는 관리형보다는 돌파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정 의원은 “지난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학법을 통과시켰고 당내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관철시켰다”며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은 민주당의 정신적 기반이자 뿌리라고 강조한 정 의원은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 철학이자 목표”라며 “민주당은 중산층 육성 및 서민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적 노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광군수 보궐선거 “투표율 높여라”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영광군의 6·4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례 혐의로 나마한 강중만 전 군수의 빈 자리를 메우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투표에 참여해야 하지만 영광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번 재·보선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일단 영광 지역의 이번 보궐 선거 투표율이 50%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전 군수가 간발의 표차로 당선

됐던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7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투표율이 선관위의 예상치를 밑돌게 만들 약재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민들의 손으로 뽑은 군수가 재직 도중 비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유권자들 사이에 ‘누구를 뽑으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회의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민 무관심에 농번기까지 겹쳐 선관위 “50% 넘으면 마트 할인”

지역 최대의 축제인 법성포 단오제를 앞두고 25일 열린 ‘골매 마라톤 대회’에 선관위 직원들이 참가해 투표율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의 대형 마트들과 ‘투표 인센티브’ 협약을 맺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50%만 넘으면 투표 참여자에게 군내 5~6개 대형 마트에서 3~7%씩 할인해 주기로 했다”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표자를 뽑는 데 (투표를 하는데 걸리는) 10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더 배우고 오겠다” 이재오 美 유학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26일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이 의원은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을 다 까먹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좀 더 배우고 충성을 다하겠다”면

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이제 넓은 세계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오겠다”고 출국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공부

할 계획이며, 측근인 진수희 의원과 권택기 당선인이 함께 출국해 며칠간 이 의원의 현지 정착을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잡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럼 간다는 데 가라고 할 사람이 어딴냐”고 반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의원의 유학 계획을 전해 듣고 ‘만류’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